

월간 주요 이슈

한국소비자원 보도자료(2021. 11. 23.)

페페트병으로 만든 의류 "안전성과 품질 문제없다"

※ 출처: 뉴스트리, 11월 24일 기사 발췌

한국소비자원, 5개 제품 대상 품질테스트

페페트병으로 만든 의류들이 안전성이나 내구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재활용 폴리에스터 의류 5종을 대상으로 환경성과 색상변화, 내구성, 안전성 등을 시험한 결과 대체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24일 밝혔다.

시험결과, 5개 제품은 모두 재활용 폴리에스터 섬유를 사용했다. 나이키와 리복은 재활용 섬유비율을 홈페이지에 한글로 제공하고 있었다. 데상트와 푸마 등 2개 제품은 재활용 원료로 만들어진 포장 재도 사용하고 있었다.

모든 제품이 폼알데하이드 등 안전성에 문제가 없었고, 표시사항도 관련 기준에 적합했다. 햇빛·땀 등에 의해 색상이 변하지 않는 정도와 세탁 후 형태가 변형되지 않는 정도인 내세탁성을 시험한 결과, 모두 권장기준을 충족했다.



아디다스, 'GP4967' 제품

또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아릴아민, 폼알데하이드, pH 시험 및 표시사항을 확인한 결과, 전 제품이 기준에 적합했다.

튼튼한 정도인 인장강도는 모두 한국소비자원 섬유제품 권장품질기준을 충족했다.

다만 데상트는 찢어지지 않고 견디는 정도인 인열강도에서 권장기준에 못미쳤다.

겉감의 두께는 0.09mm~0.32mm, 무게는 70.1g/m²~117.4g/m²로 제품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자원순환 확대를 위해 재활용 원료 의류를 환경표지 인증 의류 대상에 포함하도록 관계기관(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요청하는 한편, 시험 대상 업체에도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위해 제품에 사용한 재활용 원료 비율을 표시하도록 권고했다.